

SKT, 개발자 생태계에서 함께 소통할

대학생 테크 인플루언서 모집한다

**- SKT, 개발 관련 콘텐츠 만들어 함께 소통할 인플루언서 그룹 ‘데보션 영’ 모집**

**- 현업 개발자 밀착 멘토링 받으며 진로 고민, 개발 노하우 등 담은 콘텐츠 제작**

**- 각종 컨퍼런스 참가 기회 제공… 우수 활동자에겐 인턴십 지원 시 가점도 부여**

**- ‘데보션’, 현업** **· 예비 개발자 모두 아우르는 개발자 커뮤니티로 진화**

|  |
| --- |
| **엠바고 : 온라인 기준 19일(일) 오전 9시부터 사용 부탁드립니다.** |

**[2022. 6. 19]**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개발과 프로그래밍 관련 콘텐츠를 창작하며 개발자 생태계 내 소통과 공유 문화를 확산시킬 대학생 테크 인플루언서 '데보션 영(DEVOCEAN YOUNG)'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SKT는 SK ICT 패밀리사 소속 개발자와 외부 개발인재를 넘어 개발자를 꿈꾸는 예비 개발자까지 한데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해 개발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데보션 영'은 개발자 커뮤니티 ‘데보션(https://devocean.sk.com)’에서 활동하게 된다. 개발자들을 위한 영감의 바다’(Developers’ Ocean)라는 뜻을 가진 '데보션'은 SKT가 작년 6월 SK하이닉스, SK(주)C&C,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 SK ICT패밀리 소속 개발 전문가들과 외부 개발 인재간 소통을 위해 만든 개발자 커뮤니티다.

'데보션 영'에 선발된 대학생들은 7월부터 5개월 동안 개발과 프로그래밍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데보션'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SK ICT 패밀리 소속 개발자의 밀착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보션 영’에 참가한 대학생은 개발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로에 대한 고민부터 개발 관련 강의와 공부 방법에 대한 노하우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다. 실제 코딩과 개발 관련 멘토링 및 프로그래밍 문제풀이 참여 등 다채로운 경험도 할 수 있다.

또한 ‘데보션 영’은 '데보션'이 매월 개최하는 기술 공유 행사 '데보션 테크 세미나'를 포함해 다양한 개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지식을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SK 그룹의 ICT 종합 기술전 'SK ICT 테크 서밋'에서 직접 부스를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데보션 영'은 개발 및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오는 26일까지 '데보션' 사이트에서 지원할 수 있다. SKT는 테크 인플루언서 '데보션 영'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활동 성과가 우수한 참여자에겐 향후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 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안정환 SKT 기업문화담당은 “'데보션'이 현업 개발자를 넘어 대학생 테크 인플루언서 '데보션 영'과 함께 예비 개발자까지 아우르는 지식공유 문화의 장으로 진화하길 기대한다"며 "SKT는 개발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예비 개발자와 현업 개발자 모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실 전략PR팀 윤태구 매니저(02-6100-3816)**

|  |
| --- |
| **※ 사진설명**  SK텔레콤은 개발과 프로그래밍 관련 콘텐츠를 창작하며 개발자 생태계 내 소통과 공유 문화를 확산시킬 대학생 테크 인플루언서 '데보션 영(DEVOCEAN YOUNG)'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데보션 영’ 모집 안내 포스터. |

**<끝>**